

신앙고백(마태복음16:15-16)

할렐루야! 오늘은 신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통해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합니다.

지금 상황, 문제, 질병, 우울, 답답한 현실 속에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16:13-14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13)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14)

마16:15-16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15)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16)

* 두 종류의 성도

첫째, 종교생활 하는 사람 : 비슷한 언약, 틀린 고백,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사람중심, 열심, 무응답, 축복 없습니다.(마16:13-14),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세례요한(회개, 정의), 엘리야(기적, 체험), 예레미야(박애, 봉사), 선지자(종교, 공부)로 틀린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 신앙생활 하는 사람 : 정확한 언약, 올바른 고백,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중심, 누림, 참 응답, 참 축복입니다.(마16:15-16), 예수님을 이해한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올바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교회생활을 하는지 한번 점검을 하는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떤 신앙고백을 하느냐에 따라 축복, 응답, 역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1. 베드로의 인생 전환점

(1) 제1의 전환점 : 예수님의 만남 이후에

① 눅5:5, 베드로는 예수님을 곁에서 만났지만 빈 배, 빈 그물, 빈 지갑인생을 살았습니다. 웬지 모르게 일이 꼬이고,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② 마4:18-20,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2) 제2의 전환점 : 사명을 발견한 후에

*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되지 않았고, 자꾸만 옛날체질이 남아있었습니다. 마16:2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삼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니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 하는구나 책망하시는 것을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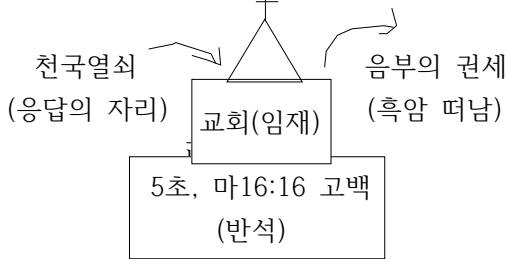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잡혀갈 때 베드로는 곁에서 따라갔지만 계집종

앞에서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제자들과 옛날 고기 잡던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 고기 잡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며 순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 전도, 선교의 사명을 받습니다.

- ① 전도사명(마28:16-20, 막16:15-20, 행1:8)
- ② 교회운동의 사명(초대교회, 세 가지 뜰)

2. 베드로의 신앙고백

(1) 종교생활 -> 마16:16 고백



(2) 소심한 성격 -> 행4:12 고백

* 마26:74,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계집 종 앞에서 겁먹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 행4:12,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전에는 겁이 많았던 베드로가 사명을 발견한 후 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살벌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 것이다.

(3) 다혈질 -> 벰전3:9 고백

* 마26:33,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 눅22:50, 베드로는 욕하는 성질대로 혈기를 제사장의 귀를 칼로 자라버리는 일을 버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물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서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봅니다.

* 벰전3: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완전 변화되어 절대로 보복하지 말라, 도리어 축복을 빌어주라,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복을 이어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예수님이 지금 상황에서 질문)

- (1) 주는(?) 그리스도시오
- (2)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 (3) 세 가지 축복(교회, 음부의 권세, 천국열쇠)